

베이스볼 브레이크

많이 써내야 유리한 야구발전기금 10구단 유치 최대변수?

PT 막상막하땐 ‘편의 전쟁’서 결판

아마야구 100억 지원 이종근 부영회장
“많이 썼다”…상상초월한 ‘빅머니’ 예상

“2년 공들인 열정·진정성 맞먹는 금액”
경쟁 감만한 KT 마지막 히트카드 관심

KT·수원과 부영·전북이 비밀리에 써넣은 ‘야구발전기금’이 궁금하다. 두 후보기업(지역)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이다. 서로의 액수를 알지 못한다. 상대보다는 많이 써야 유리하다. 제10구단이 걸린 마지막 베팅이다. 제10구단의 주인공을 가릴 평가위원회가 10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다. 양측은 각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논리와 감성으로 프레젠테이션(PT)을 펼친 뒤 평가위원단의 선택을 기다린다. 서로의 장단점은 언론을 통해 충분히 노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평가위원들에게 두 후보기업의 공약 등을 사진에 검토해오라고 당부했다. PT라는 변수도 있지만, 양측의 준비가 모두 완벽할 경우 차별화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두 후보기업이 써넣은 야구발전기금이다. 예전에는 KBO가 창단희망기업과 상의해 액수를 조정했지만, 이번에는 경쟁이었다. LA 다저스가 류현진을 데려가면서 일종의 희망이적표를 제시했던 포스트링 방식과 비슷하다. KT와 부영 모두 기존의 야구발전기금과는 차이가 큰 액수를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

●두 후보기업은 과연 얼마를 써냈을까?

이종근 부영그룹 회장은 7일 KBO에 10구단 회원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뒤 야구



부영과 KT가 써넣은 ‘야구발전기금’은 제10구단 유치를 위한 마지막 베팅이다. 부영 이종근 회장(왼쪽 사진)과 KT 이석재 회장은 전면에 나서서 10구단 유치전을 지휘했다. 스포츠동아DB

발전기금에 대해 언급했다. “많이 쓴 것 같기는 하다. 며칠 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KBO에 제출한 25부의 10구단 신청서에 일일이 자신의 손으로 야구발전기금 액수를 적어냈다. ‘많다’는 말이 포인트다. 부영은 이와는 별도로 9일 전북 아마추어야구발전기금으로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대한야구협회도 아니고 연고지역 아마야구팀을 위한 지원액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다. 이를 기준으로 10구단 신청서에 적힌 부영의 야구발전기금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KT는 부영의 물량공세에 대해 진정성과 연속성을 강조했다. “2년간 프로야구단을 준비한 열정과 진실성에 맞는 금액을 써



넣었다”며 구체적인 야구발전기금 규모에 해선 함구했다. 이전 신생팀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도, 이번은 경쟁이라는 사실을 고려한 액수를 써냈을 가능성이 크다.

●최초로 야구발전기금을 낸 구단은 NC 다이노스

한국프로야구 역사에서 신생팀은 5개였다. 1986년 빙그레 이글스가 최초였고, 1991년 쌍방울 레이더스가 2번째였다. 2000년 SK 와이번스가 3번째, 2008년 히어로스가 4번째, 2011년 NC 다이노스가 5번째 창단팀이었다. 이 가운데 NC가 최초로 20억원의 야구발전기금을 냈다. 30억원의 가입금과 구장신축 예치금 100억원을 포함해 총 150억원을 납부했

다. 이전 4개 팀은 가입금의 형태로 각자 돈을 냈다. 부영·전북과 KT·수원도 제10구단의 주인공으로 결정되면 야구발전기금과 별도로 가입금을 내야 한다. 창단팀이 결정되어야 가입금을 논의할 수 있다. KBO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다.

●도곡동 땅에서 분납까지 다양했던 가입금

최초의 프로야구 가입금은 빙그레의 몫이었다. 제7구단 이글스는 30억원을 냈다. 기존 6개 구단들이 적자를 보면서 1982년부터 프로야구라는 새로운 사업을 만든 것에 대한 보상 또는 권리금이었다. 빙그레는 현찰을 내라는 요구에 돈이 없다고 했다. 대신 자신들이 보유한 땅에 야구회관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초창기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임대로 건물에 입주해있던 KB O는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서울 도곡동에 지금의 야구회관이 탄생한 배경이다. 땅과 건물 합쳐서 30억원이라고 평가했을 뿐, 실제로 그 공사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빙그레만 안다. 1991년 쌍방울은 50억원의 가입금을 냈다. 이 가운데 해태의 연고지였던 전북이 갈라지면서 분할보상으로 10억원을 줬다. 실제 가입금은 40억원이었다. 2000년 SK는 46억원의 가입금을 냈다. 쌍방울에 부채변제용으로 70억원을 따로 지급했다. 현대 유니콘스 연고이전비용 54억원도 냈다. 보호선수 외 지명비용 80억원을 포함하면 무려 250억원이나 썼다. 2008년 히어로스는 120억원의 가입금을 냈다. 이 가운데 서울연고에 대한 분할보상으로 54억원이 나갔다. 히어로스는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며 5회 분납을 요구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 @kimjongkeon



11일 예정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는 10구단 선정 평가위원회의 결과를 심의해 최종적으로 구단주 총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행정적 절차 같지만, 이사회의 심의 과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숨어있다. 스포츠동아DB

■11일 KBO 이사회 또 다른 변수 되나?

10구단 선정의 마지막 관문 결격사유 없으면 최종 승인

10구단 창단 주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는 11일 오전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열린다. KBO는 이사회 소집 일정을 확정하고, 이사(각 구단 사장)들에게 통보했다. 이사회는 10일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심의해 최종적으로 10구단 창단 후보 한 곳을 추천해 KBO 총회(구단주 회의)에 승인을 요청한다.

이사회 개최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결국 11일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KBO 내 관계자는 9일 “일부에서 이사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10구단 창단 주체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빨리 결정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 계획대로 11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회의 현장실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선 현장으로 가 실사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평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사회 심의 결과가 10구단 창단 주체를 선정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단계다. 총회는 이사회에서 검토해 올린 안건을 대부분 추진할 뿐 재검토하는 과정은 많지 않는다. 또 구단주로 구성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하면 이사회 멤버들이 대리 참석하는 것으로 총회가 진행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래서 11일 이사회가 어떤 심의 결과를 내놓을지에 야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10구단 창단 추진이 결정됐지만, 이전까지 몇몇 이사들의 극심한 반대로 10구단 창단은 난항을 겪었다.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소속 구단은 물론 모기업과도 연관될 수 있는 10구단 창단 후보 기업과 지자체의 회원 가입에 거부감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이사회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후보기업과 지자체가 10구단 창단 주체로 적합하지 않다고 이사회가 판단하면, 10구단 체제의 출범 자체가 물거품이 되거나 10구단 창단 주체 선정작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10구단 유치전 누가 뛰었나?

부영, 전북출신 야구인사 큰 힘 KT, PT 등 내부인사 위주 활동

10구단 창단을 놓고 경쟁하는 부영·전북과 KT·수원은 지난 1개월간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10일 평가위원회 프레젠테이션이 마지막 일정이다. 프로야구단 유치를 위해 기업 회장과 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수많은 야구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안간힘을 다했다.

부영에선 전북 출신 프로야구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용일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권한대행, 이상국 전 KBO 사무총장 등 프로야구 행정가 출신뿐 아니라 김봉연, 박노준 등 프로야구 스타 출신들까지 가세했다. 그들이 가진 노하우는 뒤늦게 경쟁에 뛰어난 부영이 KT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 큰 보탬이 됐다.

KT는 내부인사 중심으로 움직였다. KT와 수원시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회원가입 신청과 프레젠테이션 등을 준비했다. 외부인사로는 이용철 유치위원이 유일한 프로야구 출신이다. 스포츠마케팅 전문가들도 일부 포함됐지만 부영에 비하면 외부인사들의 역할이 크진 않았다.

최용석 기자



2012런던올림픽 사격 2관왕 진종오(아랫줄 왼쪽 2번째) 등 KT 스포츠단 소속 선수들과 수원시민들이 9일 수원역 광장에 모여 10구단 유치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

수원 | 연합뉴스

복수후보 대결구도…충성없는 난타전

■10구단 유치전 20여일간의 기록

부영, 오너 기업 강조 연일 KT 자국
KT “교통 편리…500만명 유입” 맞불
부영, 아마발전기금 100억 승부수로

지난달 20일 KT·수원과 부영·전북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이달 7일 10구단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10일

평가위원회와 11일 KBO 이사회다. 양측의 유치경쟁은 사실상 끝났다.

지난 20여일은 짧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복수의 후보가 프로야구단 유치전을 펼쳤다. 해외 프로야구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충성 없는 전쟁’이었다. 특히 네거티브는 대통령 선거를 보는 듯했다. 포문은 공식 ‘유세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열렸고 불을 뿜었다.

지난달 13일 부영·전북은 10구단 창단 선언식을 열고 KT·수원보다 한 발 늦게 유치

에 뛰어들었다. 그러면서 KT그룹 전체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김완준 전북도지사는 “KT 회장은 임기제고, 복잡한 경영구조로 리더십이 약하다. 반면 부영은 회장 중심 체제다. 그만큼 의사 결정권이 빠르다”고 말했다. 인구와 기업 규모에서 뒤진 상황에서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의 오너십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 차원이었다.

이후 KT가 수도권 편의한 교통인프라 덕분에 최대 500만명이 관람권에 속한다고 강조하자, 부영은 지역 출신이 수도권 등 전국에 살고 있어 원정경기 흥행에 유리하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전북 출신 프로야구 스타 등 역사와 지역안배라는 명분에 주력했다. KT는 수원과 함께 ‘수도권 역차별’ 주장

을 꺼내들었다. 네거티브도 계속됐다. 정치권에서 외풍이 불고 있다는 공방도 튀어나왔다.

전체적 구도는 준비기간도 길었고, 기업과 연고지 규모에서 앞선 KT·수원을 후발주자 부영·전북이 바짝 추격하며 다양한 이슈를 만드는 양상이었다.

특히 부영은 오너 기업의 강점을 활용해 이종근 회장이 직접 나서 전북 지역 고교팀을 전폭 지원하고, 총 100억원 규모의 아마야구발전계획까지 내놓는 등 파격을 이어갔다. KT는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과 지원 방안 등에 주력하며 폭넓은 지지여론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트위터 @rushkh

SK, 포수 박경완과 2억 삭감한 3억에 재계약

SK는 9일 포수 박경완(41·사진)과 5억원에서 2억원(40%) 삭감된 3억원에 연봉 재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박경완은 지난해 부상 등으로 1군 8경기 출장에 그쳤다.



KIA, 이명수 타격코치·홍우태 투수코치 영입

KIA는 9일 이명수 타격코치와 홍우태 투수코치를 새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두산 타격코치를 지낸 이코치는 올 시즌 KIA 3군의 타격코치를 맡고, 지난해 KIA의 권역별 스카우트로 활약했던 홍 코치는 1군 볼펜코치를 맡는다.

편집 | 안도영 기자 ylabove@donga.com 트위터@sd_doo2